



## 미 증시, 차익실현 압력, 새해 랠리 기대감 소화하며 혼조

### 미국 증시 리뷰

29 일(수) 미국 증시는 연말 증시 폐장을 앞두고 전반적인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오미크론 관련 뉴스플로우, 성장 및 테크주들의 차익실현 압력, 연말 및 연초 소비 기대감과 증시 랠리 기대감 등을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다우 +0.3%, S&P500 +0.1%, 나스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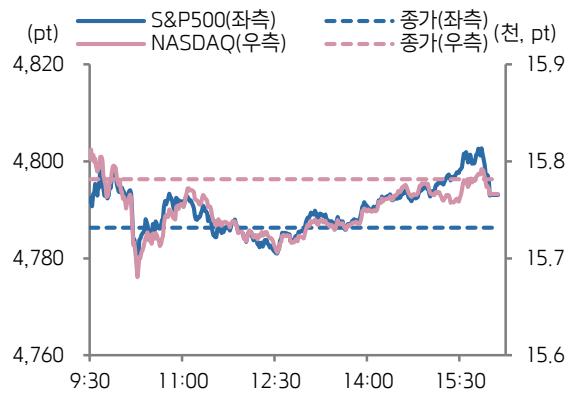
업종별로는 부동산(+0.6%), 헬스케어(+0.6%), 유틸리티(+0.5%) 등이 강세, 에너지(-0.6%), 커뮤니케이션(-0.3%), 금융(-0.1%) 등이 약세.

11 월 펜딩 주택판매지수는 -2.2%(MoM)으로 전월(+7.5%) 및 예상치(+0.8%)를 모두 하회. 중서부(-6.3%)와 서부 지역(-2.2%)의 계약 체결이 부진했다는 점이 주된 배경. 집계 측은 주택 공급 감소, 가격 부담 등으로 매매 계약이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22년에는 재고 증가로 인해 가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

11 월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전월 대비 17.5% 증가한 978 억달러로 지난 10 월(832 억달러)에 비해 큰 폭 증가. 수출(-2.1%)은 감소한 반면 자동차, 소비재 등 경기 개선 영향으로 수입(+4.7%)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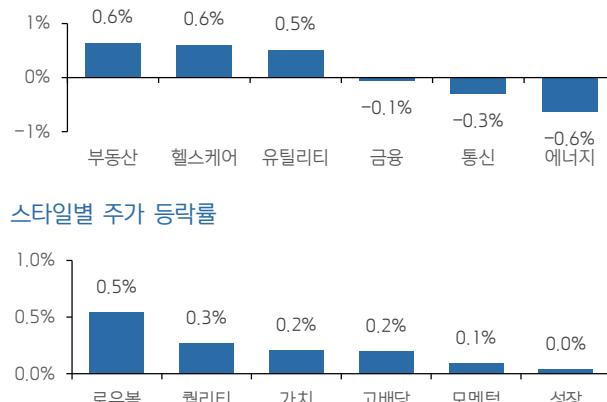
백악관에서는 29 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외교 등 여타 주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금번 논의에서는 러시아의 안보보장 요구, 우크라이나와의 지정학적인 긴장감 등이 핵심 주제인 것으로 알려짐.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793.06	+0.14%	USD/KRW	1,186.68	-0.13%
NASDAQ	15,766.22	-0.1%	달러 지수	95.90	-0.31%
다우	36,488.63	+0.25%	EUR/USD	1.13	+0.34%
VIX	16.95	-3.36%	USD/CNH	6.37	-0.07%
러셀 2000	2,249.24	+0.12%	USD/JPY	114.98	+0.14%
필라. 반도체	3,999.35	+0.18%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466.21	+0.46%	국고채 3년	1.778	-1.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175	-2.7bp
Eurostoxx50	4,284.83	-0.63%	미국 국채 2년	0.746	-0.4bp
MSCI 전세계 지수	756.06	+0.09%	미국 국채 10년	1.551	+7.1bp
MSCI DM 지수	3,239.28	+0.05%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27.12	+0.44%	WTI	76.58	+0.79%
MSCI 한국 ETF	78.88	+0.09%	금	1804.9	-0.3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5.7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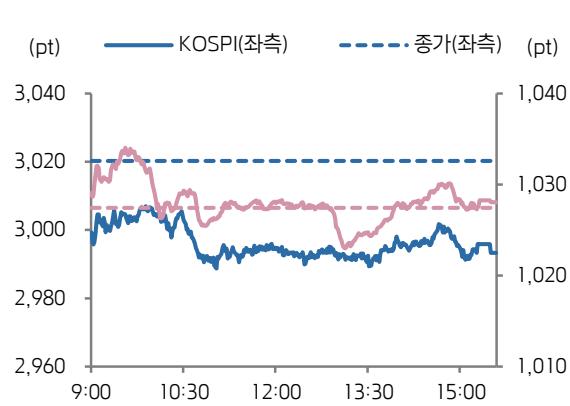
- 삼성그룹 인수 소식에 따른 미국 바이오젠(+9.5%) 급등이 국내 바이오업종에 미치는 영향
- 증시 폐장일에 따른 전반적인 매수주체들의 거래 부진 가능성
- 최근 지속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매매 변화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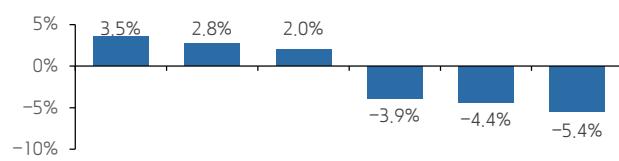
최근 미국 증시가 대체로 상승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 S&P500 지수만 놓고 봐도, '21년 연간 동안 총 70 차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연초 이후 약 30% 가량 상승하는 등 속도 및 레벨 부담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성장 및 테크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왔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들을 중심으로 고점 부담감을 소화하려는 차익실현 물량이 지속 출회될 가능성 존재. 그럼에도, 단순히 밸류에이션만 높은 성장주(혹은 테크주)들이 아니라 실적 성장이 뒷받침이 성장주들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에서 차익실현 압력으로 인한 주가 조정은 매수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거래일 배당락 효과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국내 증시는 금일에도 새해 랠리 기대감 등에 힘입어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증시 폐장일로 인해 전반적인 거래가 부진함에 따라 지수 상단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개별 이슈에 따른 업종 및 종목간 차별화 장세가 전재될 것으로 전망.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대형 제약사 바이오젠(+9.5%)이 삼성에서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 시 이 같은 글로벌 M&A 기대감이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업종들 사이에서도 확산될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또한 이들 업종은 올해 여타 업종에 비해 주가 성과가 부진해오고 소외되어 왔던 만큼, 금일 바이오젠발 재료로 인한 제약 및 바이오 업종 주가 변화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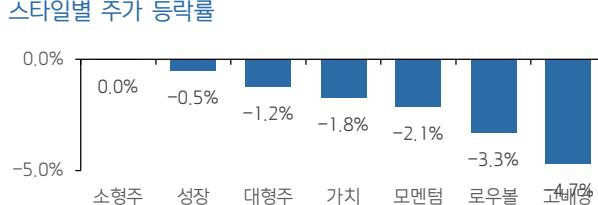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